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12월 29일
제목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문	요한복음 6:22-35

녹취

• 서론

먼저 오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가정들, 우리의 모든 일들,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최고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 없다면 짐승이다. 짐승은 감사 안 해도 되고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영혼구원 사역에 바로 이 대열 속에 우리 교회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이걸 또 감사하십시오. 또 새해에는 우리가 전도캠프를 새롭게 해야 되겠고 올해 잘 전도캠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일심, 전심, 지속했다. 일심, 전심, 지속 전도캠프하게 하심 감사하고 새해에는 전도 운동의 또 캠프의 정말 현장 살리는 축복과 맛을 우리는 전도자로 진짜 누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또 렘넌트사역은 우리 후대를 복음과 언약 속에 세우는 미래 망대로 세우는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제목 렘넌트를 위해 주시고 렘넌트 사역에 금토일 시대, 이를 위해 세 가지 뜰 기도제목 잡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2025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2025년도 아니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 언약, 계획,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다 성취하신 구원의 언약 이제 전도자인 저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 증거하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택하신 구원받기로 작성된 자들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2025년도에도 정말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24 기도하시기를, 또 특별 새벽기도회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정말 잠을 깨어서 기도회 나오시고 24 기도속에서 정말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감사헌금 지금 안하신 분 지금 하세요. 빨리 준비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 안 하면 짐승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 24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종일 하나님께 감사 24 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본론

1. 참된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

1)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 깨달은 것, 결론 나는 것, 믿는 것 (마16:16)

오늘 첫 번째로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영안을 열어 보아야 할 게 있다. 오늘 말씀에 거두절미하고 중간 즈음 본문말씀을 제가 읽겠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엉뚱한 것 진짜 많이 한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그 사역을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런데 썩을 양식, 참된 양식 진짜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절대 뜻과 계획 언약이다. 이 양식

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2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29)

또 말씀하신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3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32)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 떡을 주셨다. 그것은 참 떡 진짜 아니다. 그림자다. 떡을 먹고도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떡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깨닫는 것, 결론 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영안을 열어 제일 첫 번째 봐야 된다.

창 3:15 여자의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깨닫고 믿는 것,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영안이다. 출 3:18 그 주인공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 실제 주인공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것 깨닫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제일 중요하다. 영안을 열어 이것을 진짜 봐야 된다. 사 7:14 임마누엘의 주인공, 예수께서 그 주인공 그리스도시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났다. 그러나 참된 기적의 핵심은 많은 사람 떡을 먹고 배고픔을 면한 그것이 아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발견하고 믿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영안을 여는 것이다.

구약 광야에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다. 그것은 만나다. 그것은 그림자고 참 떡이 아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실제 하늘로서 내리는 참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떡이 곧 자기 자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한다. 육신의 양식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과 즉 영생을 주시는 참 떡, 생명의 떡이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참 떡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저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아멘 된다. 실제 하늘로서 내리는 참 생명의 떡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시다.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 같고 용어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제가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그만큼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요 6:33 하늘로부터 주시는 즉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헛갈릴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목사님 헛갈리시나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다.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

또 말씀한다. 요 6:58, 48, 요 6:35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다. 하늘로부터 영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아멘을 많이 하시라고 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또 말씀한다. 요 6:51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아있는 떡이라고 표현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찢기시는 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여러분도 이 시간 헛갈리거나 안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그다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몸은 참된 양식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전 모든 인류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 능히 죄 사함을 주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셔야 된

다 말씀하고 있다. 아멘인가?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때는 아니고 그보다 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기를 늘 아버지 등에 업혀서 어머니는 저희를 업고 못 간다. 보니까 어머니는 형님 손을 잡고 형님 초등학교 다닐 때고 저는 유치부만 할 때다.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새벽기도 간다. 가기 싫고 그런 게 없고 자고 있는데 업혀가는데 보면 춤다. 겨울날에 아버지 등에 업혀서 어디 가나 보니까 새벽기도 가는 것이다. 그러할 때다.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설명하신다. 그러면 성찬식을 풀어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찢기시는 몸을 말하는 떡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흘리시는 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는데 그 피를 마셔야 된다. 어릴 때 설교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릴 때니까 잘 모른다. 그런데 설교 듣는 대로 귀에 들리니까 큰일 났다, 예수님 살이 어디 있나? 식인종이 되어야 하나 어린 생각에 그랬다. 예수님 살을 잘라서 먹어야 된단 말인가? 피는 더 끔찍하다. 피비린내 나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먹냐 어릴 때 그랬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물론 당연히 의문이 해결되었죠. 그리고 진짜 답이 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 말씀이 당연히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저는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영안을 열어 진짜 보아야 할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며 말씀되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며 빛이시며 그 참 빛이 되신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또 갈급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임금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갈급하여 찾아온다. 예수님 그들이 진짜 믿고 따라온 제자가 아님을 아시지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고 했다.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니깐 너무 어려운 것이다. 심지어 따르는 제자들 열두 사도는 아니겠조. 70인 제자들 중이겠조. 많은 제자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낙마해서 무리들처럼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다고 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감동 많이 주고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힘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서 힘을 내야 할 때인데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설교하려니까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2. 하나님의 절대 뜻?

1)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요6:29)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많은 반복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있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다. 하나님의 절대 뜻이 무엇인가?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되신다.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놀라운 복음이다. 저는 다락방에서 말씀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해소된 게 있다. 그중에 간단한 메시지인데 어는라 훈련받는 가운데 집회 장소는 모르겠다. 훈련을 갔다. 그때는 전도자들이 갈급해서 복음 앞에 전도 때문에 몰려들고 훈련받았다. 마치 오병이어 벧세다 광야에 영적으로 갈급한 무리들이 모인 것처럼 전도자들이 초기와 조금 지나도록 모여들었다. 지금은 지난주 화요제자훈련 하루 했다.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다. 줄여서 수요일까지 했다. 그러다가 줄고 줄어서 1박 2일 했다. 요즘은 거의

하루 한다. 그때는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했다. 그때 가서는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 간단하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꽂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것 깨닫고 복음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 그다음에 성경 주신 이유 멸망받지 말고 구원 얻어라.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절대 뜻과 계획이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믿는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 6:29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매일 나가서 하고 열심히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믿음 좋고 충성하는구나 하죠.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절대 뜻, 계획,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다. 잘 믿는 것, 믿음 좋은 것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가장 책망하시고 하나님 가장 머리가 아프실 일 없지만 머리 아픈 것, 하나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혹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없는 것, 안 믿는 것 예수님 얼마나 그러셨으면 책망하셨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24장 말씀하신다.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 얻어

라. 영생, 영원한 생명 즉 구원받아라. 그 핵심이 무엇인가? 참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영생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찬양인도하는 장로님 우리 교역자가 오셔야 하는데 교역자 구할 수가 없다. 장로님이 할 수 없이 인도한다. 여러분 제발 예배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서 뜨겁게 찬송하며 마음 문 여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보니까 나는 모태신앙 아니고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못된 신앙이다. 모태 신앙이다. 4대째 우리 자녀들 5대째.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 몰랐다. 그러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믿음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있다.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또 구원의 축복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앱 1:3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구원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구원이다.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한데 잘 모른다. 모르니까 찾아 못 누린다. 그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저도 그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맞더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 1:27-28, 2:2-3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누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골 2:2-3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것이다.

2)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요6:40)

요 5:24 말씀했다. 요 6:40에 제가 성경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읽으면서 설교하고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했다. 그리스도이신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니.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핵심 되는 것이다. 믿으라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절대 뜻이다. 너무 간단명료하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평생에 성경일독도 안 하고 요한복음 일독도 안 해본 분 많을 것이다. 거짓말 아니다. 우리 다락방 성도들, 중직자들 깜짝 놀란 적 있다. 펴보세요.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뜻과 계획, 요한복음의 주제, 성경 66권 하나님주신 이유,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 생명의 오늘 말씀에 떡이 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며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의 떡이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떡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으라는 말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교회 나오는 불신자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 결론

요한복음의 주제 오늘 말씀 다 했다. 요 6:63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 빛도 되시고 생명의 물도 되시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다.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영생을 주시는 떡이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떡, 빵, 소고기, 돼지고기, 시래깃국만 먹고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되시며 참 생명의 떡 말씀 되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할 때 많은 무리들 너무 어렵다고 했다. 다 떠나갔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두 사도는 아닌 것 같고 70인 제자들, 또 70인 아닌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따랐다. 그 제자들도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그 말은 모르겠다, 안 믿겠다, 안 믿어진다고 말이다.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놀라운 비밀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요한복음 6장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 재미나게 기록했는데 확실하게 기록했다.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다니지 않았다. 제자에서 떠나갔다. 표적과 기사 체험했지만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갔다. 무리들이다. 제자 아니다.

요 6:67-68 결론의 말씀인데 예수님 이때 열두 제자인

사도에게 물어보신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지난번 성경 버전이 더 좋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말이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믿습시다 그 말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참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오직 말씀되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되시고 그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시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참 떡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 생명,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정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모든 성도님들 참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시대 참 생명을 주는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 되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의 가정가문 복음화, 대구, 칠곡에 하나님 이 복음의 오직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